

곡성군, 반려동물 무선식별 장치 지원

한 달간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 200개 선착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지원...등록 수수료 1만원



곡성군이 9월 한 달 간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을 운영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곡성군은 무선식별장

치(칩)를 지원하며 1,600두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해 미등록 개체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와 등록률 확대를 위해 올해도 내장형 칩 지원을 다시 계획하게 됐다.

통상 반려동물 등록에는 식별장치와 등록 수수료를 포함해 3~5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이번 반려동물 특별등록 기간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곡성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 수수료가 1만원만 지급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올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수량은 200개 한도이다. 소견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을 동반한 채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9월 둘째 주중에 읍면 순회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야 한다. 현재 곡성군에는 곡성읍에 소재한 마로동물병원(363-9482)과 우리동물병원(934-9825), 옥과면에 소재한 심동동물병원(362-0779)까지 총 3개소가 지정돼 있다.

현행법상 주책 및 준주책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와 모든 맹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의 유실 및 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 등도 소유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루고 있었다면 이번 특별등록 기간에 반드시 소중한 반려동물을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곡성=김광희기자

비대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화순군 '우리집 탄소 가계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화순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확대를 위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참여자를 모집한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온실가스 진단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등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무료로 점검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각 가정 등을 방문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진단 컨설팅을 희망하는 가구

는 11일까지(11일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우리집 탄소 가계부(<http://udo.kcen.kr/>)'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가정 55개소, 상가 6개소 총 61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 관계자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전기·수도·가스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상수도 수압 불량 해소 총력

담양군, 수압 해결 압력유지밸브 설치...상수도 안정공급

담양군은 상수도 사용이 겹치는 시간대에 물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른 수압 부족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수압이 낮아지므로 동일한 시간대에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 등의 대수용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급

수 구역 조정과 신규관로 매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먼저 9월 중 현재 시급한 담양읍 백동리 주변 아파트 5개소와 군부대 1개소에 수압 유지 밸브를 설치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압력 유지 밸브가 설치되면 수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사 진행 시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수해 지역 및 단수 수용가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단수 지역 8월분 감면, 수해 피해가구 8·9월분 감면

구례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단수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취수장 침수로 인한

단수 피해를 받은 단수 지역 주민과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이다. 단수 및 호우 피해 주민들은 8월분 전체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되고, 호우 피해(주책 침수 및 파손)

신고를 마친 주민 및 소상공인은 9월 청구되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상·하수도요금에 대하여 감면을 실시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호우피해 신고 확정된 수용가와 단수 피해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면을 실시하고,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호우피해로 시름이 깊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카드형 '나주사랑카드' 출시

지역상품권 앱 'chak' 또는 농협·우체국 방문 발급 신청



나주시가 1일 지류(중)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형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를 출시했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카드상품권 1호 지자체'가 됐다.

시는 지난 6월과 7월 조폐공사, NH농협은행전남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카드 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신뢰·보안성 제고와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1일부터 출시된 나주사랑카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한국조폐공사 앱(APP)

'지역상품권 chak'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내 농협·우체국을 방문, 농협·신한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충전 금액에 따라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방식으로 앱을 활용해 충전 및 사용내역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인당 한도액은 기존 상품권과 동일한 월 70만원이며 충전 금액 10%할인과 소득공제 30%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주시는 이번 카드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류형 상품권 선호도가 비교적 저조했던 공공기관 임직원과 직장인, 청년층 등 이용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특히 그동안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으로 지적돼왔던 '상품권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비롯해 상품권 발행 및 판매비용·환전 수수료 절감, 휴대성, 판매 대행점 업무 간소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사랑카드는 올해 1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드발급에서부터 충전, 잔액확인, 사용내역조회 등 편리해진 나주사랑카드 사용을 통한 착한소비 운동에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도

지난 2년간 평균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지급

장성군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를 모집 중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지난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연2회 에너지 항목별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포인트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4211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상시 가입이 가능하며 세대주나 상업시설의 실사용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정인하고 풍요로운 광주

GWANGJU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